

가정교과의 인식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백민경* · 왕석순**¹⁾

솔내고등학교* ·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recognition measurement of Home Economics Subject

Baek, Min-kyung* · Wang, Seok Soon**¹⁾

Solnae high School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scale to measure how students and parents, who are the consumers of education, and home economics teachers and education experts, who are the suppliers, recognize the home economics subjec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goal of the revi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that is currently being applied in South Korea, in the year 2007.

To do this, the survey on home economics recognition developed and utilized in prior researches was used as the basic data. The final version of 60 questions was made by adding questions made through steps. They include question quality factor verification through step1-interview, step2-draft questions, step3-preliminary research, and step4-substantiation research of four groups.

As a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of the recognition of home economics, credibility is high in all factors. The final scale consists of 8 factors, when the explanatory power is 57.439%. This shows that home economics has been established as education for living and a practical subject. Nevertheless, it needs further improving to be recognized as a subject involving emphasis on healthy formation of family life and a subject of practical criticism.

Key words: 척도 개발(Develop a scale), 가정교과(Home Economic Subject), 인식(Recognition), 측정(Measurement)

1) 교신저자: Wang, Seok Soon, 1200 Hyoja-dong, Wansan-gu, Jeonju-si JellaBuk-do 560-870, Republic of Korea
Tel: 063-220-2331, Fax: 063-220-2053, E-mail: wangwhite@jj.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정교과는 필수교과로 설정된 1차 교육과정부터 2007년에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과 목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실천비판적 패러다임을 비롯해 다양한 패러다임이 혼재하여 그 성격과 목표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기르는 것에서 생활의 질 향상을 통한 생활문화의 창의(創意) 그리고 가정교육의 사회기여나 관여 등 그 목표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의 성격이나 목표는 아직도 일제 말 가정학이 도입되던 시기의 이미지인 여성교육이나 가사·기술의 전수과목이란 전근대적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사회적 편견의 이미지가 가장 큰 교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정교과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인식은 교과의 성격이나 목표와 같은 본질과 관련한 진실 여부를 떠나 가정교과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정교과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인식이나 이미지를 평가해보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정교과 교사 자신을 포함하여 교육관련 전문가 집단 그리고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은 가정교과가 필수교과로 자리매김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교과의 성격, 목표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가정교과를 여전히 가사기술 전수나 여성교육 차원의 교과로 인식하고 있다면, 현재 교육에서 가정교과가 차지할 당위성은 감소되기 때문에 가정교과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가정교과 인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매우 미미하다. 7차 교육과정 이후 가정과 교과교육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한국가정교육학회지에 실린 가정교과 인식관련 연구는 4편이고, 대한가정학회지에 실린 연구는 1편으로 교과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논문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양정혜, 2003).

한편,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조사 연구는 2005년 이후 전개되어 와서, 박미정(2006), 왕석순, 남수정(2007),

박미정 외(2007) 등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결과를 보면 박미정(2006)은 가정교과 교사의 현재를 토대로 한 인식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요구까지 조사하여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 가정교육의 발전 방향을 강조했고, 왕석순 외(2007)는 예비교사 외의 집단-가정교과의 전문가 집단, 가정교과를 현재 배우는 중등학교의 학생,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집단이 가지는 교과에 대한 이미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정교과 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를 반영하므로, 이들 가정 교과의 이미지를 연구하는 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신효식, 박미숙(2006)은 중학교 가정교과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이들은 학부모의 교과에 관한 인식 및 요구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가정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에 대한 바른 인식은 교사에게는 교과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감, 그리고 학습자에게는 흥미를 향상시켜주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 또 가정교과 전공 이외의 집단이 가진 교과에 대한 인식 정도는 가정 교과를 보는 다른 교육 당사자들의 인식을 아는 데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된다. 교육과정 개편 시기마다 가정교과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비전공자들로 인하여 가정교과는 실제와 다른 오해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효식, 박미숙(2006)이 지적하였듯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즉, 가정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의 당면 집단에 해당하는 가정교육의 제공자인 가정교과교사와 관련 교육 전문가 집단 및 교육 수요자로서의 학생, 학부모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이들 집단의 사람들이 가정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가정교과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는 가정교과를 현재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되므로, 조사대상자의 가정교과의 올바른 인식에 의한 교과관 확립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정교육과정에 근거한 정확한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라는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교육의 당면 집단원들(가정교과사, 교육 전문가, 학생, 학부모)이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를 토대로 가정교과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규명할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교과사, 교육 전문가, 학생, 학부모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성격, 목표를 반영한 교과 인식)은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가?

II. 관련문헌 고찰

1.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사회계몽과 여성교육의 차원에서 도입된 가정과교육은 해방이후 1차 교육과정부터 필수교과였으나, 그 성격과 목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사회계몽과 여성교육의 필요에서 시작된 가정과교육은 가사기술의 전수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가사기술적 관점의 가정교육의 성격은 교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정체성에 큰 변화

를 가져왔다.

문헌상에 나타난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을 살펴보면 제 1~3차 교육과정기는 직업 수행을 위한 직업교육적 성격이 강했던 반면, 제 4~5차 교육과정기는 과도기적이고 혼합적 성격을 띠었다. 특히, 제4차 교육과정의 경우 실업 가정교과는 직업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정 과목은 교양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교과와 과목의 성격이 상충하였다. 제 6~7차 교육과정기는 교양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채정현 외, 2011),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인의 자아와 개인적 능력을 기르고, 가정의 생활문화를 창의하며, 사회적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는 교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술과학적 측면에서 생활의 질 향상에 주력해온 목표는 물론 개인의 자아를 향상시켜 가정, 사회적 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개인을 기르는 실천비판적 관점의 목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시기별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를 종합해보면 전 교육과정을 통해 가정과 교육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목표는 합리적인 가정생활,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 개인·가족·사회와의 관계 이해 등이다(이춘식 외, 2001). 변화된 것은 이수방법이 여성교육에서 양성교육으로, 직업교육적 성격에서 교양교육적 성격으로, 기술 이론적 성격에서 실천 비판적 성격으로 바뀐 것이다(채정현 외, 2011).

다음은 선행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과교육의 성격 또는 목표를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시된 성격 및 목표와 비교하여 재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과교육의 성격 또는 목표

연구자 (연구년도)	가정과 교육의 성격이나 목표에 대한 내용
조호정, 안숙자 (2000)	· 가정과교육은 ...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되, 학생들의 문제와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30쪽)
신상옥 외 6인 (2000)	· 가정교과의 목표인 가정생활을 자율적 행동을 오래 유지하며 그를 통하여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 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기술적 합리성을 추구 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22쪽)
최기옥, 채정현 (2000)	· 가정과 교육의 목표는 가족의 일원인 학생으로 하여금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 하도록 돕는데 있다.(2쪽)
박순자, 신상옥 (2000)	· 가정과는 학문의 분류상 실천과학 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교과의 목표는 실천 가능하도록 진술되어야 한다.(66쪽)
왕석순 (2000)	· 가정과교육의 긍정적인 목표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의 질 향상' 에 있는데...가정교과교육이 양성평등교육 과 의미 있는 연계를 가져서... (82쪽)

<표 계속>

연구자 (연구년도)	가정과 교육의 성격이나 목표에 대한 내용
유태명 외 5인 (2000)	· 가정교과는 실생활의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교과 로서… 가정교과가 추구하는 실천성을 실현하기 위하여…(116쪽)
권영란, 조필교 (2000)	· 가정교과는 실용성애의 유용성이 증시되는 과목 으로 일상생활에 실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147쪽)
김금옥, 김명자 (2000)	· 가정과교육은 개인과 가정, 사회생활을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172쪽)
류상희 (2001)	· 실천적 비판과학 패러다임 에 의한 가정과교육의 목적은 개인과 가족의 기술적, 실천적, 해방적 행동을 형성 하고 유지하도록 이끄는 것이다.(2쪽)
왕석순 (2001)	· 실천적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가정과교육의 목표 구현에 유효한 문제해결의 과정으로…가정과교육 적용의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32쪽)
심은희, 송원교 (2001)	· 가정교과는 타인과의 협력으로 청소년에게는 만족한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고,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교과 이다.(56쪽)
김재광, 채정현 (2001)	· 가정과 교육의 목표는 가족의 일원인 학생으로 하여금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돕는데 있다.
윤인경 외 4인 (2001)	· 가정과교육은 실생활에서의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교과 로서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물론 …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기술의 형성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100쪽)
문성희, 채정현 (2001)	· 가정과교육은 가정생활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성 및 의식을 개혁 하여 성숙한 가정인으로 준비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120쪽)
이재복 외 2인 (2001)	· 가정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문제해결력, 창의력, 응용력, 협동성 을 길러 긍정적인 자아개념 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교과 특성이 잘 반영된…(132쪽)
김신영, 윤인경 (2002)	· … 가정생활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길러주고, 가정생활의 기본인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88쪽)
변현진, 채정현 (2002)	· 미국의 가정과교육에서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사고기술인 비판적 사고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2쪽)
정미경 (2002)	·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도래를 계기로, 가정교육을 통하여 여러 고등사고 능력을 위시하여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52쪽) · 가정교과는 전인적 발달과 창의성 증진 에 기여하는 교과적 특성 내지는 책무성…(63쪽)
지금수, 이진숙 (2002)	· 미래사회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남녀 역할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정생활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하는 가정교과에서 양성간의 평등한 인간관계 를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79쪽)
고인숙, 김혜연 (2003)	· 기술가정 교과가 실생활에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교과 로서 체험학습 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높아지므로 실습시간 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85쪽)
윤인경 (2004)	· …단순 기능보다는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실생활에 적용하는 힘 등을 길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7쪽)
왕석순 (2005)	· … 문제중심으로 접근 하여 현재의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는 문제해결적 관점 을 강조하면서 부분개정의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2쪽)
유태명 (2006)	· ‘나와 가족생활을 개인과 가족, 사회,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나와 가족생활 중에 일어나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 하여 건강한 가족생활 을 영위할 수 있다.’ 로 선정하였다.(93쪽)
유태명 외 2인 (2007)	· 가정교과의 성격은 기능 및 직업교과, 실천교과, 비판교과 의 성격으로 시대별로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66쪽)
박순자 (2007)	· … 성평등 문화 와 가정 내 역할 및 가사노동 분담 등으로 남녀가 함께 하는 가정생활에 중점을 둔 인간의 생활 환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영위하는 능력 을 기르는 방향으로 남녀학생 모두에게 …(129쪽)
김현숙, 유태명 (2007)	· 미래형 인재는 창의적 사고 를 할 수 있는 사람 …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대화능력이 있는 사람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113쪽)

출처 : 왕석순(2003). 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의 목표 규명을 위한 문헌 고찰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2), p79-99(p86 표에서 재구성).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결국 가정과교육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교육목표는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인의 능력 함양은 물론이고,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여 개인·가족·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개인과 가정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며, 나아가 개인과 가정생활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환경의 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한말부터 시작된 가정과교육의 성격은 교과와 이수방법이 여성교육에서 양성 교육으로 바뀌었으며, 가사기술의 전수나 가사기술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직업 교육적 성격에서 모든 국민의 보통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교양 교육적 성격으로 바뀌었으며, 기술과학적 관점에서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미시적 관점을 가정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적극적 실천을 강조한 거시적 관점을 강조하는 실천비판적 성격을 포괄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새로운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상에 나타난 가정과 교육의 목표는 나의 삶, 가정생활, 산업 기술의 세계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산업 기술에 대한 기본 소양을 습득하여 현재와 미래 가정생활과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교육부, 2009).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가정교과의 성격과 목표, 가정과교육의 특성과 모습은 달라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가정과 교육의 이미지나 성격에서 도출된 가정과교육의 정체성은 '가정(家庭)'과 연관되어 가족 및 가족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어 온 교과라는 점이다. 즉, 태초의 인류에서부터 시작한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교육의 내용으로 하는 대표 교과라는 점이다.

2. 교과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가정교과의 성격이 시대별로 달라졌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인식 역시 바뀌는 건 당연한 결과이다. 미국에서도 가정교육에 대한 인식이 시기별로 바뀌어, 현재는 East(1980)의 견해를 기반으로 한 Thomas(1986)의 연구결과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기순임, 채정현, 1998; 채정현, 유태명, 박미정, 2007). 이 연구결과에서는 East의 전통적인 여

성교육으로서의 가정과교육, 수공훈련으로서의 가정과교육, 환경증진을 위해 과학을 응용하는 가정과교육, 가족관리를 위한 가정과교육, 가족발달에 중점을 둔 가정과교육, 어려움에 처한 집단을 돕는 가정과교육으로 모두 6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채정현, 유태명, 박미정, 2007).

왕석순(2003)은 교육과정에 반영된 가정과교육의 목표가 편물, 수예, 침공 등의 여성교육, 실업으로서의 여성의 직업교육, 가사실무 분야의 강조와 생활의 과학화 및 개선을 위한 기능 및 기술교육,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능력습득의 강조와 같은 4가지로 변화하여 왔다고 기술하며, 가정과교육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목표 변화와 관련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이종이(1995)는 교육과정의 성격을 중심으로 하여 1880년대부터 4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까지 여성 중심의 단순가사 실무능력 양성을 위한 성격의 '전통적 관점'과, 5차 교육과정 개정시기부터 현재까지 남녀모두에게 필요한 전인교육, 교양교육적 성격의 '새로운 관점'의 2가지 대별된 관점의 가정과교육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였다.

가정교과 학습내용에 대한 성별 인식의 연구를 고찰해 보면, 홍은정(1996)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가정과목의 학습내용을 건전한 생활이념과 인간형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가정과목은 중요하고 가정생활과 밀접한 과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배명순(1998)의 연구에서 가정교과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과 도시지역 학생들이 더욱 높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가정과교사가 인식하는 현재와 미래 가정과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박미정, 채정현, 2007)에 의하면, 가정과교육의 성격에 대해서 가정과교사는 현재 여성 교과적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미약하고, 생활기능 교과적 성격이 강하며, 미래에는 실천교과적 성격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순임, 채정현(1998) 역시 Thomas(1986)의 관점을 가정과교육에 대한 전통적 견해(여성교육, 수공 훈련으로서의 가정과교육)와 진보적 견해(과학 적용, 가정관리, 가족발달, 특수 집단 적응을 위한 가정과교육)로 나누어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인식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가정과교사들은 전통적인 견해보다 진보적인 견해에 더욱 동의하고, 특히 여성을 위한 가정과교육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석순, 남수정(2008)은 예비 가정교사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적응을 위한 교과, 편견으로 소외된 교과, 삶의 기본요소를 알려주는 교과, 가정생활을 강조하는 교과, 개인적 성숙을 강조하는 교과의 5가지로 가정과교육의 이미지를 유형화하였다. 가정과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로 인하여 다양한 논의와 때로는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는 현재의 가정과교육학계에서 예비교사들의 이미지 유형화 결과는 다양한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사실적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자신이 지각하는 이미지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의 형성은 대상에 대한 보다 합리적 판단과 행동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교과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는 교과에 대한 필요성과 흥미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과교육의 정당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교과의 이미지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가정과교육의 성격이나 목표를 학생이나 교사, 관련 교육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기 보다는, 가정교과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인식으로 표현함)를 조사하거나 또는 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선호도, 또는 흥미도와 필요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담당교사 뿐 아니라, 관련 교육 전문가와 같은 다양한 교육제공자 집단,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과 같은 교육수요자 집단이 생각하는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고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교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진정한 목적은, 가정과교육의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기초 자료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

III. 연구설계 및 방법

1. 조사도구 및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왕석순, 남수정

2008; 박미정, 채정현 2007; 주인숙, 백성희, 이은희 2006; 왕석순 2003)에서 개발되어 활용된 가정교과의 인식에 대한 설문지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가정과교육의 성격 및 목표를 추가하여 기초자료로 작성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 문항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1) 1단계 - 문헌고찰과 개방형 설문지 조사

일선 학교에서 가정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과 교사와 그 외의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육 전문가 집단(29명), 그리고 학생들(63명)과 일반인(학부모 포함, 23명)을 대상으로 '가정교과는 어떤 교과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간략한 서술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Open questionnaire을 통하여 문항을 수집하였다. 개방형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한 49문항과 관련 선행 연구의 자료로 수집한 문항인 33문항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82 문항의 1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 2단계 -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사

가정교과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와 Open questionnaire을 통하여 수집한 총 82개의 문항을, 지도교수 및 가정교육학 석사 1인과 가정학 박사 1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사를 받아 총 70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3) 3단계 - 예비조사

2단계에서 작성한 70개 문항으로 작성된 예비 질문지를 중·고 학생들(20명)과 학부모(15명) 그리고 교육전문가 집단(20명)에게 직접 나누어 주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선, 문항이 다소 많았고, 중복된 내용과 내용 전달이 어려운 문항이 있었으며, 표현이 애매하거나 문항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이 많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과정을 거쳐 일반인들에게 내용 전달이 어려운 일부 문항이 손질되었고, 중복되는 문항의 경우 응답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대로 문항화 하였으나 매우 같다고 판단된 문항은 통합하여 총 60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3단계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60개 문

항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 가정교과사 그리고 교육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총 1,163명), 5점 Likert식(1점=‘매우 그렇다’, 2점=‘그렇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지 않다’)의 질문지로 구성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개발한 총 60개 문항의 질문지를 학생용과 학부모용, 교사용으로 구분하였고, 교사용의 경우는 가정교과사와 교육 전문가 집단에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먼저, 중·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배부한 설문지는 전라북도 소재 중·고등학교 중에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군·읍·면), 중·고 학교급별과 학년, 그리고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총 9개 학교를 선정해 2009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에 걸쳐 학생용 총 610부, 학부모용 210부를 택배 발송하였다. 다음으로 가정과 교사용 설문지는 전라북도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2009년 3월 16일부터 4월 10일 기간 동안 153부를 발송하여 최종 73부(47.8%)가 회수되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끝으로, 교육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 발송한 설문지 역시 전라북도 소재 중·고등학교 중 20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가정교과 외의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설문에 응하도록 부탁하였고 발송한 설문지 총 190부 중 149(78.4%)가 회수되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12.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개방형 설문지 조사와 문헌고찰, 예비조사를 통하여

확정한 60개 문항에 대하여 문항 양호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양호도 검사는 χ^2 검증과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하여 실시하였다. 문항양호도 검사 이후에 문항(척도)의 타당도 검사를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항(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고찰

1. 문항 양호도 검사 결과

가정교과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개방형 설문조사,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사, 예비조사 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60개 척도에 대하여 1차적으로 문항양호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문항 양호도는 χ^2 검증을 한 후, 그 지수로서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우선 역코딩을 해야 할 문항(25번, 36번, 37번, 38번 문항)을 결정하였고, 60개의 문항 중 χ^2 값이 p(유의 확률)<.05 수준에서 유의하지 못하거나, Cramer's V계수가 Ahman과 Glock(1967, 유영주, 어은주 1995에서 재인용)이 만족스러운 변별도 기준으로 제시한 .2 이상에 못 미치는 문항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유의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이 3개, Cramer's V계수가 .2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이 3개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21번, 22번, 23번 문항으로 나타났다(<표 2>). 따라서 문항양호도 검사를 통해서는 최종적으로 57개 문항이 양호한 척도로 나타났다.

<표 2> 척도문항내용 및 χ^2 , Cramer V

문항	χ^2	p	Cramer's V
v1	71.212	0.000	0.409
v2	85.905	0.000	0.449
v3	53.285	0.000	0.354
v4	53.900	0.000	0.356
v5	54.816	0.000	0.359
v6	44.401	0.000	0.323
v7	70.889	0.000	0.408

(● 표시된 문항은 요인분석 시 제외된 문항을 의미)

문항	χ^2	p	Cramer's V
v8	59.388	0.000	0.373
v9	63.494	0.000	0.386
v10	57.235	0.000	0.367
v11	66.760	0.000	0.396
v12	58.107	0.000	0.369
v13	58.105	0.000	0.369
v14	55.960	0.000	0.362

<표 계속>

문항	χ^2	p	Cramer's V
v15	44.058	0.000	0.322
v16	51.257	0.000	0.347
v17	46.578	0.000	0.331
v18	50.955	0.000	0.346
v19	36.739	0.000	0.294
v20	53.699	0.000	0.355
● v21	10.438	0.578	0.157
● v22	13.106	0.361	0.175
● v23	16.338	0.176	0.196
v24	19.616	0.045	0.215
v25	37.556	0.000	0.297
v26	22.605	0.031	0.230
v27	28.018	0.005	0.256
v28	67.967	0.000	0.399
v29	39.390	0.000	0.304
v30	25.889	0.011	0.247
v31	42.669	0.000	0.316
v32	35.064	0.000	0.287
v33	52.243	0.000	0.350
v34	21.184	0.048	0.223
v35	21.249	0.047	0.223
v36	68.585	0.000	0.401
v37	48.676	0.000	0.338

문항	χ^2	p	Cramer's V
v38	63.148	0.000	0.385
v39	36.869	0.000	0.294
v40	57.975	0.000	0.369
v41	63.132	0.000	0.385
v42	52.286	0.000	0.349
v43	25.529	0.013	0.245
v44	49.498	0.000	0.341
v45	37.594	0.000	0.297
v46	45.822	0.000	0.328
v47	30.893	0.002	0.269
v48	20.934	0.049	0.222
v49	38.196	0.000	0.299
v50	40.817	0.000	0.310
v51	49.368	0.000	0.340
v52	58.954	0.000	0.372
v53	45.024	0.000	0.325
v54	56.254	0.000	0.363
v55	26.537	0.009	0.250
v56	46.937	0.000	0.332
v57	55.485	0.000	0.361
v58	41.078	0.000	0.311
v59	50.462	0.000	0.344
v60	42.456	0.000	0.316

2. 요인분석 결과

문항 양호도 검사를 통하여 최종 57문항으로 구성된 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가정교과 인식의 요인을 분별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베리맥스 방법을 이용해 요인회전을 실시하였

<표 3> 회전된 성분행렬

문항	성분								h ²	Cronbach α
	I	II	III	IV	V	VI	VII	VIII		
V15	0.814	0.094	0.068	0.075	-0.101	0.051	-0.047	0.106	.937	.941
V16	0.760	0.169	0.088	0.129	-0.144	0.060	-0.015	-0.167	.938	
V14	0.739	0.103	0.223	0.158	-0.015	0.111	0.063	0.192	.936	
V13	0.714	0.035	0.317	0.143	0.002	0.133	0.021	0.105	.937	
V10	0.684	0.174	0.139	0.065	0.164	-0.021	-0.029	0.210	.937	
V05	0.676	0.223	0.007	0.124	0.306	0.122	-0.039	-0.021	.937	
V04	0.659	0.165	0.033	0.107	0.173	0.139	-0.091	0.188	.938	
V12	0.649	-0.024	0.422	0.095	0.165	0.103	-0.074	0.071	.937	
V06	0.646	0.126	-0.004	-0.012	0.367	0.147	-0.126	-0.003	.938	
V07	0.645	0.158	0.183	0.060	0.333	-0.063	0.030	0.104	.937	
V09	0.636	0.220	0.071	0.093	0.255	0.010	0.016	0.179	.938	
V08	0.615	0.231	0.116	0.061	0.422	0.048	0.001	0.142	.937	
V19	0.586	0.089	0.084	0.010	-0.014	-0.004	-0.123	0.114	.941	
V18	0.577	0.092	0.071	0.191	0.224	0.314	-0.057	0.010	.939	
V17	0.577	0.141	0.194	0.275	0.137	0.241	-0.067	-0.088	.939	
V11	0.548	0.096	0.313	0.035	0.389	0.064	-0.010	0.209	.938	
V20	0.500	0.070	0.346	-0.041	0.247	-0.044	-0.183	-0.129	.942	

<표 계속>

문항	성분								h2	Cronbach α
	I	II	III	IV	V	VI	VII	VIII		
V52	0.248	0.674	0.293	0.178	0.180	0.115	0.114	-0.016	.868	.888
V50	0.085	0.666	0.364	0.090	0.208	0.174	-0.083	-0.018	.871	
V51	0.099	0.662	0.082	0.169	0.009	0.216	0.250	-0.052	.882	
V53	0.086	0.590	0.181	-0.008	0.439	0.207	-0.017	0.203	.876	
V54	0.354	0.574	0.253	0.017	0.250	-0.006	-0.015	0.146	.873	
V55	0.436	0.537	0.037	-0.182	-0.022	-0.021	-0.195	0.153	.886	
V58	0.353	0.534	0.302	0.038	-0.001	0.038	-0.079	0.175	.878	
V56	0.427	0.534	0.133	0.036	-0.031	0.064	0.017	0.237	.879	
V49	-0.019	0.480	0.407	0.162	-0.043	0.229	0.253	-0.032	.885	
V57	0.314	0.456	0.393	0.117	0.174	0.094	-0.090	0.304	.874	
V45	0.296	0.255	0.702	0.094	0.071	0.110	-0.077	0.018	.818	.852
V44	0.211	0.280	0.668	0.211	0.207	0.185	0.119	0.085	.813	
V46	0.410	0.238	0.620	0.011	0.009	0.010	-0.086	0.168	.827	
V42	0.281	0.238	0.546	0.142	0.115	0.182	-0.001	0.386	.822	
V43	0.027	0.183	0.526	0.208	0.075	0.261	0.096	0.122	.844	
V47	0.138	0.268	0.437	-0.010	0.028	0.190	0.155	-0.079	.853	
V60	0.321	0.379	0.396	0.086	0.126	0.135	-0.050	0.175	.841	
V37	0.145	0.028	0.161	0.742	-0.018	-0.083	0.085	0.004	.687	.735
V36	0.204	0.132	0.191	0.703	0.105	0.166	-0.170	0.032	.621	
V38	0.168	0.145	0.208	0.631	0.156	0.148	-0.139	0.030	.643	
V25	0.108	-0.027	-0.030	0.543	0.093	-0.045	-0.155	0.433	.748	
V03	0.420	0.178	0.115	0.153	0.557	0.094	0.073	0.055	.810	.817
V01	0.364	0.154	0.144	0.218	0.547	0.183	0.040	0.215	.748	
V02	0.449	0.203	0.222	0.260	0.493	0.072	0.135	0.135	.683	
v30	-0.011	0.083	0.305	0.061	0.201	0.698	0.069	-0.134	.668	.717
V35	0.168	0.203	0.116	-0.016	-0.068	0.640	-0.076	0.064	.681	
V29	0.220	0.172	0.183	0.108	0.343	0.468	-0.146	0.085	.664	
V31	0.104	0.324	0.093	0.326	0.168	0.457	0.115	0.176	.671	
V34	0.033	-0.052	0.168	-0.364	-0.097	0.412	-0.009	0.107	.742	
V39	0.287	0.272	0.062	-0.059	-0.089	0.374	0.140	0.332	.687	
V33	0.178	0.107	0.298	0.274	0.274	0.325	0.056	0.322	.675	
v26	-0.051	0.107	-0.009	0.061	0.116	-0.044	0.797	-0.054	.525	.626
V24	-0.152	-0.011	-0.049	-0.164	-0.165	0.032	0.643	0.012	.473	
V27	-0.231	-0.182	0.026	-0.275	0.046	-0.205	0.575	0.009	.576	
V28	0.199	0.199	0.196	0.170	0.171	0.132	0.569	0.283	.626	
V48	-0.156	0.062	0.045	-0.303	-0.327	0.114	0.367	-0.043	.635	
v32	0.134	0.178	-0.012	0.056	0.286	0.400	-0.142	0.495	.608	.652
V41	0.390	0.295	0.386	0.164	0.001	0.229	-0.051	0.467	.462	
V59	0.146	0.056	0.149	-0.040	0.227	-0.095	0.224	0.441	.707	
V40	0.423	0.213	0.343	0.237	-0.078	0.177	0.054	0.439	.534	
고유치	9.891	4.828	4.471	3.032	2.925	2.849	2.445	2.300	총변량 57.439	
분산	17.352	8.469	7.844	5.320	5.132	4.998	4.289	4.034		
누적 분산	17.352	25.822	33.666	38.985	44.117	49.115	53.404	57.439		

는데, 그 결과 8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8개의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57.439%로 나타나서, 비교적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된 성분 행렬은 <표 3>과 같다.

요인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8개 요인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의 값을 산출한 결과, 각 요인별로 0.941, 0.888, 0.852, 0.735, 0.817, 0.717, 0.626, 0.652로 나타났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를 보이기 위해 실시된

Cronbach's α 의 결과가 모두 0.6이상으로 나와서, 척도의 신뢰도의 수준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요인 명명 과정

<표 3>의 요인 분석 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이 연구에서의 조사를 통해서는 가정교과의 인식이 8개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하여 확인한 8개의 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명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표 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모두 17개의 문항이 공통성을 가지면서 동일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1에 묶인 문항들의 내용을 보면, 가정교과가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능력, 문제해결 능력, 유연성, 인성, 비판적 사고능력, 위기대처능력과 같은 성숙을 위한 기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교과이며, 주변 사회적 환경의 적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교과라고 인식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하고 있는 실천 비판 패러다임에서 강조하는 가정교육의 성격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서, 요인 명칭을 ‘인간의 성숙과 사회적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실천적 교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요인 I 은 전체 분산의 17.35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표 5>와 같이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II에 묶인 문항들의 내용들을 보면 가정교과가 전 생애에 걸쳐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부분을 다루며 결혼·출산·육아와 같이 가정생활에 직접적인 관련뿐만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위한 바탕이 되며, 가정교과 이외의 여러 교과와도 연계되고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심층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결국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가정생활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는 교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 II는 위 내용을 종합할 수 있는 ‘전 생애에 걸친 광범위한 교양을 쌓는 교양교과’로 명명하였다. 요

<표 4> 요인 I : 인간의 성숙과 사회적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실천적 교과

문항 번호	요인 부하치	문항 내용
V15	0.814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V16	0.760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V14	0.739	인간관계에서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교과
V13	0.714	인간을 성숙하게 해 주는 교과
V10	0.684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과
V05	0.676	일과 직업생활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도록 해주는 교과
V04	0.659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과
V12	0.649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인성교육 교과
V06	0.646	가정생활과 관련된 직업생활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
V07	0.645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교과
V09	0.636	가정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교과
V08	0.615	개인, 가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
V19	0.586	직면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과
V18	0.577	배운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V17	0.577	가족 및 청소년의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
V11	0.548	가족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가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교과
V20	0.500	미래 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생활설계의 능력을 키우는 교과

〈표 5〉 요인 II : 전 생애에 걸친 광범위한 교양을 쌓는 교양교과

문항 번호	요인 부하치	문항 내용
V52	0.647	전 생애에 걸쳐 다루어져야 할 교과
V50	0.666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숙지되어야 할 교과
V51	0.662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는 교과로 가정교과만의 특색이 모호한 교과
V53	0.590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가정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과
V54	0.574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위해 바탕이 되는 교과
V55	0.537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앞서나가는 교과
V58	0.534	가정교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와 연계될 수 있는 교과
V56	0.534	전문교과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교과
V49	0.480	조속해져가는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심층있게 다루어야 할 교과
V57	0.456	이과계열 보다는 문과계열로 오해받기 쉬운 교과

〈표 6〉 요인 III :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주도하는 생활문화 교과

문항 번호	요인 부하치	문항 내용
V45	0.702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교과
V44	0.668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올바른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교과
V46	0.620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한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외 시 되어가는 교과
V42	0.546	건전한 성문화를 책임지고 정착시키기 위해 개선을 요하는 교과
V43	0.526	현장 체험과 연계되어야 할 교과
V47	0.437	다방면으로 많은 기술을 요하는 교과
V60	0.396	평생교육 차원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내포하는 교과

인 II의 설명변량은 전체 분산의 8.469%다.

세 번째 요인은 <표 6>와 같이 모두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III에 묶인 문항들의 내용들을 보면 가정교과가 개인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가족생활 유지를 위해 도움이 되며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책임지고 실제 현장체험을 비롯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기술

을 요하는 교과로 인식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개인의 인성교육을 토대로 정체성 확립과 개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올바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교과로 정리가 되어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주도하는 생활문화 교과’로 명명하였다. 요인 III의 설명변량은 전체 분산의 7.844%다.

네 번째 요인은 <표 7>과 같이 모두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

〈표 7〉 요인 IV : 독자적인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구축과 적극적 홍보가 요구되는 교과

문항 번호	요인 부하치	문항 내용
V37	0.742	주로 여성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편견이 있는 교과
V36	0.703	주요 교과와 달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교과
V38	0.631	졸업 후 특정 직업 이외에는 필요 없는 교과
V25	0.543	누구나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부담 없는 쉬운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

며 특히, 요인 IV에 해당하는 모든 문항은 통계 분석 시 역코딩된 문항들이다.

이러한 문항들을 종합해보면 가정이라는 타이틀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고, 늘 가까이 존재하고 접하기 때문에 가정교과에 대한 특별한 의미부여나 중요성이 강조되기 보다는 오히려 누구에게나 쉽고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남성 위주의 전통사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안의 가사노동과 가정살림은 거의 여성이 도맡아왔기 때문에 가정교과가 주로 여성에게 편향된 교과라는 편견과 전통적인 인식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가사작업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결국 졸업 후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직업과 연관이 적다고 오해받기 쉽다. 하지만 21C 현대사회는 상호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남녀평등 시대이며 양성성을 강조하는 체제로 변화한 만큼 가정교과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반영과 더불어 가정교과가 보다 전문적이고 가정교과로서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는 교과로 정리하여 ‘독자적인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구축과 적극적 홍보가 요구되는 교과’로 명명하였다. 요인 IV의 설명변량은 전체 분산의 5.320%다.

다섯 번째 요인은 <표 8>과 같이 모두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인 V에 묶인 문항들의 내용들을 보면 가정교과가 의·식·주, 소비, 가족관계에 대한 과학적 사고와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능 및 삶의 기본이 되는 능력을 제공하는 교과로 인식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들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정교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의 기본적인 요소를 가르쳐 주며 가정생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게 해준다. 또한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다룸으로써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생활의 과학적 지식과 기본 능력을 길러주는 생활교과’로 명명하였다. 요인 V의 설명변량은 전체 분산의 5.132%다.

여섯 번째 요인은 <표 9>와 같이 모두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VI에 묶인 문항들의 내용들을 보면 가정교과가 학교 현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생활의 다양한 경험과 실험·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실천을 중요시하며, 이론·실기 모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배

<표 8> 요인 V : 생활의 과학적 지식과 기본 능력을 길러주는 생활교과

문항 번호	요인 부하치	문항 내용
V3	0.557	의식주, 소비, 가족관계에 대한 과학적 사고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교과
V1	0.547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교과
V2	0.493	삶의 기본 바탕이 되는 능력을 제공하는 교과

<표 9> 요인 VI : 실생활의 유용한 경험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의 적용을 중시하는 응용교과

문항 번호	요인 부하치	문항 내용
V30	0.698	지식보다는 실천이 중요시 되는 교과
V35	0.640	실생활에 유용한 실습이 강조되는 교과
V29	0.468	생활의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
V31	0.457	이론, 실기 모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교과
V34	0.412	너무 다양한 분야의 전공이 있어 세분화 시켜야할 교과
V39	0.374	학습자와 학부모, 교사와의 연계가 가능한 교과
V33	0.325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꼭 필요한 교과

〈표 10〉 요인 Ⅶ :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적 당위성에서 소외되고 있는 교과

문항 번호	요인 부하치	문항 내용
V26	0.797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소외 받는 교과
V24	0.643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한 교과
V27	0.575	취업과 연결이 적은 교과
V28	0.569	사회적 편견에 제일 상처받는 교과
V48	0.367	이론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교과

우고, 실천적 경험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천교과로서의 실험과 실습을 강조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항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실생활의 유용한 경험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의 적용을 중시하는 응용교과’로 명명하였다. 요인 Ⅵ의 설명변량은 전체 분산의 4.998%다.

일곱 번째 요인은 <표 10>과 같이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Ⅶ에 묶인 문항들의 내용들을 보면 가정교과가 입시와 취업에 관련성이 적어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하고 사회적 편견에 상처받는 교과로 인식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어 있다.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되는 비율 또한 다른 주요 교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고, 그 비중이 매우 낮아 중·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 역시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경향(양석순, 2009)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문항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적 당위성에서 소외되고 있는 교과’로 명명하였다. 요인 Ⅶ의 설명변량은 전체 분산의 4.289%다.

마지막 여덟 번째 요인은 <표 11>와 같이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Ⅷ에 묶인 문항들의 내용들을 보면 가정교과가 삭막

〈표 11〉 요인 Ⅷ : 행복한 삶의 설계에 기여하는 행복 디자인 교과

문항 번호	요인 부하치	문항 내용
V32	0.495	여자, 아내, 엄마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과
V41	0.467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가 될 만한 교과
V59	0.441	보건교과, 영양교과의 출현으로 현재 논란이 많은 교과
V40	0.439	삭막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과

〈표 12〉 가정교과에 대한 8가지 인식 유형

유형	가정교과 인식에 대한 유형 명명
유형 1	인간의 성숙과 사회적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실천적 교과
유형 2	전 생애에 걸친 광범위한 교양을 쌓는 교양교과
유형 3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주도하는 생활문화 교과
유형 4	독자적인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구축과 적극적 홍보가 요구되는 교과
유형 5	생활의 과학적 지식과 기본 능력을 길러주는 생활교과
유형 6	실생활의 유용한 경험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의 적용을 중시하는 응용교과
유형 7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적 당위성에서 소외되고 있는 교과
유형 8	행복한 삶의 설계에 기여하는 행복 디자인 교과

해진 이 시대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가 될 만한 교과라고 인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여성으로서 최상의 목표인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이 되는 교과로 정리할 수 있어 ‘행복한 삶의 설계에 기여하는 행복 디자인 교과’로 명명하였다. 요인 VIII의 설명변량은 전체 분산의 4.034%다.

이상의 요인분석 결과에 의해 8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각 요인을 척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명명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가정교과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선행연구 고찰, 개방형 질문지에 의한 조사를 통하여 1차적으로 82개 문항을 추출하였고 전문가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사에 의해 70개 문항으로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조사를 통하여 60개 문항으로 최종 조정하여 가정교과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5점 리커트식의 조사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가정교과를 접하는 다양한 교육의 당면 집단원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정교과를 배우는 중, 고등학교의 학습자, 중·고등학교의 자녀를 둔 학부모, 가정교과를 직접 가르치는 가정과 교사, 그리고 비전공자인 교육 전문가 집단의 4개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4개 집단의 조사 대상자는 총 1,163명이었다. 수집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12.0을 활용하여 χ^2 검증,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h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우선, χ^2 검증과 그 지수로서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한 1차 분석에서는 3개 문항이 삭제되어 총 57개 문항으로 척도가 수정되었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57개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 척도는 8개의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이 8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57.439%에 이르렀다. 8개 요인은 ‘인간의 성숙과 사회적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실천적 교과’, ‘전 생애에 걸친 광범위

한 교양을 쌓는 교양교과’,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주도하는 생활문화 교과’, ‘독자적인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구축과 적극적 홍보가 요구되는 교과’, ‘생활의 과학적 지식과 기본 능력을 길러주는 생활교과’, ‘실생활의 유용한 경험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의 적용을 증시하는 응용교과’,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적 당위성에서 소외되고 있는 교과’, ‘행복한 삶의 설계에 기여하는 행복 디자인 교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교과가 기존의 생활·실천교과로서의 의미로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대·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정생활의 변화와 이를 반영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을 근거로, 가정교과에서 건강한 가정생활 형성에 대한 중요성과 실천 비판 교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가정교과의 성격은 가정교과교사의 학교사회에서의 임무 수행을 통하여 확대되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교사의 임무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연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올바른 교과관은 교과의 필수교과로서의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 학생의 올바른 가정교과에 대한 교과관 정립을 위하여 교수·학습과정에서 가정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사의 노력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가정교육의 본질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를 중심으로 가정교과에 대한 개인 및 우리사회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개인 및 집단이 가정 교과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타당한 잣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정교과의 필수교과로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집단의 가정교과의 인식도를 평가하는 타당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전라북도 지역 내의 집단(중·고 학생, 학부모, 가정과 교사, 교육전문가)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개발한 척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교과에 대한 인식이 바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개발된 도구를 기준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교육 주체들의 가정교과의 인식도를 과학적으로 실증화하는 조사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09). 2007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고인숙, 김혜연 (2003).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교과의 수업운영 및 교과내용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과학회지**, 15(4), 67-86.
- 권영란, 조필교 (2000). 가정과 의생활 단원에 적용된 웹 수업자료 개발 및 실행방안. **한국가정과학회지**, 12(3), 145-156.
- 기순임, 채정현 (1998).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가정과교육에 대한 견해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5), 187-201.
- 김금옥, 김명장 (2000). 협동학습이 가정과목의 학습성취도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12(3), 171-181.
- 김신영, 윤인경 (2002). 가정교과에 적용한 지식적수업과 비지시적수업이 여고생의 학업성취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학회지**, 14(1), 87-95.
- 김재광, 채정현 (2001). 교사의 관심(CBAM모형)에 기초한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의 실행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3(3), 1-11.
- 김현숙, 유태명 (2007). 우리나라 가정과 교육과정과 미국의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과의 비교고찰. **한국가정과학회지**, 19(4), 91-117.
- 류상희 (2001). 가정과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가정과학회지**, 13(1), 1-11.
- 문성희, 채정현 (2001). 식생활 단원에 적용한 가정과 실천적 추론 수업이 여고생의 도덕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학회지**, 13(3), 119-130.
- 박순자, 신상옥 (2000). 한국과 일본의 실과 및 기술·가정과교육의 역사적 변천 비교. **한국가정과학회지**, 12(3), 65-76.
- 박순자 (2007). 2007개정 교육과정 개정 전과 후의 실과 및 가정과 의생활 교육내용 분석. **한국가정과학회지**, 19(3), 37-60.
- 배명순 (1998). **중학교 학생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활용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성희 (2006).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에서 의생활 교육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국가정과학회지**, 18(3), 97-117.
- 변현진, 채정현 (2002).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이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검증 -가족관계와 자원관리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14(3), 1-9.
- 신상옥 외 6인 (2000). 중학교 가정교과의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업 모듈 및 웹 기반 교육자료 개발. **한국가정과학회지**, 12(3), 19-38.
- 신효식, 박미숙 (2006). 중학교 가정교과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도. **한국가정과학회지**, 18(3), 1-22.
- 심은희, 손원교 (2001). 중학교 가정과 의생활 영역의 협동학습 지도안 개발. **한국가정과학회지**, 13(1), 55-72.
- 양정혜 (2003). 7차 교육과정 이후 가정과 교과교육의 연구 동향. **대한가정학회지**, 41(11), 61-72.
- 왕석순 (2000). 고등학교 가정과 '가족'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수업지도안 개발. **한국가정과학회지**, 12(3), 77-91.
- 왕석순 (2001). 가정과교육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수 학습전략-교수 학습 모형 및 교수 학습지도안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13(1), 25-37.
- 왕석순 (2003). 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의 목표 규명을 위한 문헌고찰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5(2), 79-99.
- 왕석순 (2005). 제7차 기술·가정 교육내용 적정성 평가-가정과교육 영역 중심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17(4), 133-156.
- 왕석순, 남수정 (2008). 예비 가정교사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이미지의 유형. **한국가정과학회지**, 20(4), 205-221.
- 유태명 외 5인 (2000). 중학교 가정과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의 교육자료 개발 및 현장적용 연구 -실천적 추론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12(3), 115-127.
- 유태명 (2006). 가정과교육에서 '나와 가족생활' 영역의 교육목표와 내용체계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8(2), 79-95.
- 윤인경 외 4인 (2001). 사고력 신장을 위한 가정교과 교수 학습자료 개발. **한국가정과학회지**, 13(3), 103-118.
- 윤인경 (2004). 제 6차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 교과서 비교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6(4), 1-8.
- 이재복, 김영남, 채정현 (2001). 협동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협동학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정과 중2 식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13(3), 131-146.
- 이춘식, 최유현, 유태명 (2001). **실과(기술가정)교육목표 및 내용체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미경 (2002). 중·고등학생의 다중지능 및 창의성과 가정과 학

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4(3), 51-64.

조호정, 안숙자 (2000). 중학교 가정 교과 중 식습관 단원에 실천적 문제 해결과정을 적용한 수업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2(2), 29-45.

주인숙 (2006).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에서 의생활 교육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학생의 인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3), 81-95.

지금수, 이진숙 (2002). 가정과 교육내용의 유용성 인지에 관한 연구-중학교 '가족과 일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4(3), 77-88.

채정현, 유태명, 박미정 (2007).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가정교과 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9(1), 65-79.

채정현, 박미정, 김성교, 한주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 반영 가정과교육론**. (주)교문사.

최기옥, 채정현 (2000). 중학교 가정과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

역에서 Gordon의 창의적 문제해결법의 적용.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2(3), 1-17.

홍은정 (1996).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학생들의 가정 과목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ast, M (1980). *Home Economics-Past, Present, and Future*. Boston: Allyn and Bacon, INC.

Olson, K (1999). Practical reasoning. In Johnson, J. & Fedje, C, (1999). *Family and consumer science curriculum: Toward a critical science approach*. Education and Technology Division, 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Thomas, R.G. (1986). *Alternative View of Home Economics : Implication for K-12 Home Economics Curriculum*.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4(2). 162-188.

<국문요약>

이 연구는 가정교과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개방형 질문지조사, 전문가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사, 예비조사의 3단계를 거쳐 조정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4집단(중·고 학생, 학부모, 가정과교사, 교육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χ^2 검증과 그 지수로서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 57개 문항으로 수정되었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척도는 8개의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8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57.439%였다. 8개 요인은 '인간의 성숙과 사회적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실천적 교과', '전 생애에 걸친 광범위한 교양을 쌓는 교양교과',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주도하는 생활문화 교과', '독자적인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구축과 적극적 홍보가 요구되는 교과', '생활의 과학적 지식과 기본 능력을 길러주는 생활교과', '실생활의 유용한 경험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의 적용을 중시하는 응용교과',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적 당위성에서 소외되고 있는 교과', '행복한 삶의 설계에 기여하는 행복 디자인 교과'로 명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개인 및 집단이 가정교과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타당한 잣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가정교과가 필수교과로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집단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도를 평가하는 타당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논문접수일자: 2012년 5월 16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6월 29일